

天助 自助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월드컵 16강 진입만 되면 국가적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떠들던 6월이 가고, 7월에 접어들면서 49년간 한반도 북쪽에서 신격화 되었던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조문을 가야 하느냐, 전범인데 왜 조문이나로 국론이 분열되었던 한달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하늘은 비를 내리는 것을 중단하였고, 연일 35℃를 넘는 한중막 더위로 농촌은 물론 온 나라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제는 태풍까지도 기다리는 형편이 되었다.

배추가 고기보다 비싸게 되었고, 이렇게 몇일만 더가면 채소를 먹기 힘들게 되거나 앓을까 걱정이 앞선다.

채소를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나, 벌써 야채값 폭등소식이 들리는 것을 보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도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농지의 전용을 쉽게 해서 농지를 줄이는 정책이 실시되기도 전에 지난해의 냉해에 이어 금년의 한해로 쌀마저도 자급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곡물 자급률이 29% 이하로 떨어져 앞으로 기상이변이나 식량무기화 등의 돌발사태가 일어날 경우 지금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의 현실로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쌀밥에 고깃국을 주겠다는 수령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때가 되니까 이 세상을 떠났다. 49년이라는 긴 세월 절대권력을 휘둘렀지만,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집권과 권력의 집중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준다는 교훈만을 주었다. 영변 핵발전소로도 쌀밥과 고깃국은 만들지 못하고 말았다.

생명체는 끊임없이 신진대사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면 기존에 있었던 세포는 물러나는 것을 반복한다. 그런데 죽지 않고 계속 버티며 커가는 세포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세포를 암세포라고 부른다.

이들 암세포가 커지면 그 생명체가 죽게 되고 그때서야 암세포도 함께 죽는다. 냉전시대, GATT시대의 주역은 퇴장하고 통일과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새 주역으로 신진대사가 되어야 한다.

이번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의 이한 기자회견



구약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있다.

이제 UR협상후 수입농산물 때문에 그나마 농촌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지고 물통을 옮기며 갈라진 눈에 물을 보낼 사람도 없어지면 하늘도 이 땅에 비를 내릴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



견중 우리를 크게 긴장시키는 말이 있었는데, 남북간의 교역이 내국간 거래로 인정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내국간 거래로 추진할 경우 국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GATT에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말할 수가 없다고 밝힌 점이다. 동서독은 GATT에 가입할 때 이 문제를 분명히 함으로써 내국간 거래로 인정을 받았고, 이번 UR협상에서 남북간 거래가 내국거래라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외국의 충고나 농민단체의 주장을 묵살하고 협상을 추진한 정부 당국자의 답변이 나와야 할 시기이다.

지난번 북한에 쌀을 보낼 때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UR협상 타결후 정부 당국자는 내국거래라고 인정받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나온

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으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협상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농사도 기계화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기계도 작동을 할 수가 없다.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농사지를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그쳤다는 말로 표현되는 농촌의 어려움은 이제 축산쪽에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농사를 지으면 장가도 들기 힘들 정도로 되었으니, 농촌에 일할 사람이 있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이다.

이러한 지혜를 제일 먼저 깨달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구약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있다. 농촌에 경작할 사람이 없는데 비가 필요하냐는 해석도 될 수 있다.

전국이 폭염과 한발로 아우성이다. 특히 대도시에는 많은 자동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휘발유를 태워 도시의 온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아스팔트와 건물의 복사열은 밤에도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한다.

벌써 야채의 품귀와 전기의 부족, 물을 아껴 쓰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의 음식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30%에 이르러 그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농촌은 갈라진 눈에 물을 대느라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양동이로 물을 운반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UR협상후 수입농산물때문에 그나마 농촌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지고 물통을 옮기며 갈라진 눈에 물을 보낼 사람도 없어지면 하늘도 이 땅에 비를 내릴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 